

# 市 “시민 체감 성과 창출”…道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민선8기4년차시·도정 방향

광주시

AX 2단계사업·AI컴퓨팅센터 유치  
복합쇼핑몰 착공·통합 돌봄도 확대  
姜시장 “AI·돌봄 국가대표로 도약”

전남도

SOC예산 즉각 투입 건설경기 혼풍  
COP유치·에너지수도·벤처창업 박차  
金지사 “기본소득 선도지역 만들 것”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시민 체감 성과 창출’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AI, 돌봄, 교통체계 개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로 대한민국 미래 선도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시는 핵심 과제로 ▲복합쇼핑몰 착공 및 교통대책 수립 ▲AI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AX실증밸리 2단계 사업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통합돌봄 확대 및 돌봄통합지원법 정착을 제시했다.

먼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얻어낸 정부 주도의 ‘군공항 이전 6자 TF’ 구성을 시작으로 행정 신뢰 회복과 현실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민·군 통합공항 무안 이전 시 광주시의 1조원 지원 약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D-70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프레(Pre) 대회인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가 열리고 있는 26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남자 대학부 50m 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번 대회 결승전은 오는 9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전과 같은 장소인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29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기사 16면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 기자

군공항 이전은 시장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신뢰 확보와 과학적인 소음 검증, 실질적인 대안 마련 등 TF를 통해 본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최근 광전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관련해 신세계 측이 협상 제안서를 접수함에 따라 ‘신속·공정·투명’ 원칙 아래 올해 안에 사전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더현대 광주’ 착공을 시작으로 복합쇼핑몰 3종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인 만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대자보 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 및 공간 재배치를 중점 추진한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오는 12월까지 1단계 상부도로 포장을 완료할 방침이다.

교통체계 개편은 도시철도 진행 상황에 맞춰 버스 노선 개편을 먼저 시행하고 도시철도 완공 이후 추가 조정하는 2단계 개편으로 나눠 추진한다. 기존 버스 운영 재계약 문제도 포함해 즉각적인 실행을 검토한다.

‘AI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AX실증밸리(AI 2단계) 사업 추진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착과 함께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AI 돌봄의 국가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해 공공배달,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문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강기정 시장은 “AI, 돌봄, 복합쇼핑몰, 군공항 이전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 경제 회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전남 실현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정부 추천안에 반영된 SOC 관련 예산이 최종 확보되는 즉시 현장에 투입, 건설 경기에 혼풍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남도 비상지역경제 상황실을 중심으로 물가·고용·

소비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변화와 혁신의 전남 도약을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 실현, 남해안 남중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농협·수협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도 나선다.

또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 지방이양사무 재원 영구 보전,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상원 신설 건의 등 전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구·RE100 산업단지 하이퍼스케일라 유치, 세계 최대 AI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시대’ 등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2면에 계속 /변은진·양시원 기자

## 대통령실, 하루 만에 ‘광주 군공항 이전 TF’ 본격화

4개 비서관실 참여 ‘6자 협의체’ 전남  
소음 피해 분석 등 기관별 역할 검토  
광주시·전남도도 TF 참여 준비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지시한 대통령실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이 하루 만에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상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속도전’ 양상으로 해결할 것이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관실 주재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는 강훈식 실장과 수석비서관, 비서관들 외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들까지 총 90명이 넘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TF는 국도비서관실이 간사를 맡고 국방비서관실과 자치발전비서관실, 갈등조정비서관실로 구성된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TF를 구성하는 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간 불신을 해소하고 빠른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라며 “대통령실 TF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의 구성과 주관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주민과 외부 전문가도 협의체에 포함될 수 있고 대통령실도 협의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TF는 군공항 이전 관련 비용을 추산하고 공항

시설의 효율적인 배치와 국가 재정 지원, 소음 피해 분석 등 군공항 이전 방안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검토하게 된다.

대통령실의 빠른 움직임에 광주시와 전남도도 TF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을 위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요구한 대통령직속기구가 현실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도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TF 참여를 준비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은 지역민의 요구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TF 참여를 준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 24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의논했고 정책실 산하에 5자 TF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대

통령이 결심해 군공항 이전 TF를 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하루 만에 빠른 후속 조치를 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환영한다”며 “대통령실 TF가 주축이 돼 분야별로 실질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한다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Today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무산 6면

박계영의 몸에 좋은 제철음식…‘보리’ 14면

타이거즈 최초 4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16면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당신의 에너지 센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1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유지)  
월 6,780원

2  
문 닫고  
냉난방하기  
월 16,890원

3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월 14,610원

4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월 76,350원

5  
영업시간 외  
소등하기  
월 80,880원

6  
낮 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월 9,930원

7  
개방형 냉장고  
문 닫아 사용하기  
월 198,510원

8  
화장실, 복도 조명  
센서로 점·소등  
월 7,950원

9  
승강기 적층  
운행하기  
월 33,120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ECN 한국남동발전 KOMIPO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CMYK